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경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십자가 보혈의 생수가 예배에 넘치게 하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혈의 생수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그 곳으로부터 흐릅니다!

영과 진리(요 4:24)만이 신령한 예배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신령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보다 우선할 그 무엇이 없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제언 15분

1. 15분, 일찍 교회로 향한다
2. 15분, 일찍 모임을 마친다
3. 15분, 일찍 본당에 앉는다

• 본당에 착석할 때 앞자리부터 채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

찬양예배 시 제2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온)

복음
The Gospel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①

1. 확실성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천동생 야고보는 증언하였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 한때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인 예수님의 행동을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 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약 1:1).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유다도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유 1:1,20~21).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많은 실수를 범하였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다.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요 21:5~17).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였으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으며 재림을 확신하였다(벧전 5:4).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살전 4:16~18). 사도 요한은 맛고 섬에 유배되어 고독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음에도 재림을 확신하며 복음

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독려했다(요일 3:2~3).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천사들의 말대로 우리는 하늘로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이다(행 1:11).

2. 그가 오실 표적

감람산에서 쉬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질문하였다(마 24:3). 이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4~5,11,24).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눅 21:25~26). 예수님은 바로 그 때에 자신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1:27). 동시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표적이 보일 때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셨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마음이 가까웠느니라"(눅 21:28).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믿음을 흔들 것이며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수록 더욱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자. 거룩한 척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자(딤후 3:13).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무시하며 세상의 것들을 성경과 조화시키려는 악한 일들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속지 말자.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각인하고, 복음을 전하자(딤후 4:1~2).

-다음 호에 계속-

임의독사 등정 해외 출타 중이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ARE WE?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ohn 1:7)

Who are we? This is one of life's most basic questions. Are humans a product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or are we a special creation of God? Also, what's wrong with everybody? People have serious problems! Throughout history philosophers, scientists, psychologists, criminologists, preachers, and various others have tried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good news is that the Bible answers them. God is very clear in explaining who we are and what's wrong with us. His answers don't leave us in the dark, but rather lead us to the Light.

The Bible says that God created human beings in His image.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Gen. 1:27). God spoke the world into existence, but in creating man He used small particles of the earth.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Gen. 2:7). In God's creation of the world, human beings are His best and the highest product. God gave man dominion over the earth.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Gen. 1:26). Man was created in a natural and moral likeness to God. Adam and Eve, the first human beings, were created without sin. Like God, they had intellect, emotions, and will. God placed them in a perfect environment.

The Bible says that man fell through sin marring his image.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Gen. 2:16-17). There was only one forbidden fruit in the Garden of Eden. How gracious God had been, but Adam and Eve chose to disobey their God. In their taking of the forbidden fruit the whole human race fell into sin. Before their disobedience, Adam and Eve's hearts were filled with pure worship, praise, and thanksgiving toward God. They lived a beautiful and glorious life. In not following God's direction, they ruined it. The forbidden fruit became overly attractive.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took from its fruit and ate; and she gave also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Gen. 3:6). Does this situation remind you of yourself? It's so very, very sad. Romans 3:10-23 say, "as it is written,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ll descendants of Adam fall in sin. We all experience sinfulness. You and I are sinners. Romans 5:12 says,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Sin is everywhere. Everyday the newspapers announce the actions of sinners through their reports of murder, robbery, and war. Greed, jealousy, and pride prevail. Our efforts to remedy the situation, through rules, regulations, and education all fail. Persecution and punishment systems fail. Even the church's efforts are decaying badly. All human efforts to battle sin fail!

The Bible says that through God's grace Jesus restores our image. "So then as through one transgression there resulted condemnation to all men, even so through one act of righteousness there resulted justification of life to all men. For as through the one man's disobedience the many were made sinners, even 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Rom. 5:18-19). Adam's disobedience plunged us into a world of sins, but Christ's obedience soars us into heaven's holiness.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alvation is available to all people! Jesus Christ releases us from the bondage of sin into the freedom of grace.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Eph. 1:7). Jesus' resurrection guarantees that He lives to keep us. "who was declared the Son of God with power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Jesus Christ our Lord"(Rom. 1:4). Jesus intercedes on our behalf.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Heb. 7:25). Not only that, but through faith in Jesus all believers receive the indwelling of God's Holy Spirit.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 For you have been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1 Cor. 6:19-20).

Who are we? Are you still questioning what's wrong with yourself? Please just throw away your pride and praise the Lord Jesus Christ. Thank Him for letting you become God's child, giving you eternal life, and having the privilege of calling God your Father. If you look for earthly values in today's question you will get confused and become lost. If you look to Jesus, you will see that you are the image of God, you are God's child, you are born again, and you do have His Holy Spirit to empower you for great things. Even God's children sin, but you can look at yourself and know that everything is not wrong, but rather everything is beautiful for the blood of Jesus cleanses you from all sins. Your joy in Christ enables you to share the good news with others. "what we have seen and heard we proclaim to you also, so that you to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indee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These things we write, so that our joy may be made complete"(1 Jn. 1:3-4). Amen. ■

우리는 누구인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김성판 목사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까? 또 인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설교자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쁜 소식은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의 작은 입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인간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사람은 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들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에덴동산에는 유일하게 금지된 한 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배와 찬양,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그러한 삶은 깨져버렸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달콤했고 그 나무의 열매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각하셨습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로마서 3:10-23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12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일간지

에는 살인, 강도, 전쟁 등 죄인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실립니다. 탐욕과 질투, 자만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규제, 법규, 교육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억압과 응징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노력마저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심장자의 은혜는 훼손된 형상을 회복시킨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8-19).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은혜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엢 1:7).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 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헌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히 7:25).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생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생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질문에서 이 땅의 가치를 찾는다면 혼란스럽고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거듭날 것 그리고 자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부여 주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여러분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씹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1:3-4). 아멘. ■

거듭난 삶

어려운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①

(시편 121:1~2)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적 도전이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신자들의 상황을 어렵게 묻고 간다. 이처럼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 121:1). 산을 향해서 눈을 돌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2). 어려운 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편안하고 넓은 길을 약속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도움만이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신다. 주님의 일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시 121:3~4).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총이 아닌가! “여호와를 버릴 자기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손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시 121:5~6).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키신다(시 121:7~8).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지금은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건도 끊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자(사 45:22).

눈을 들어 추수할 것을 바라보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는 눈을 들어 추수할 것을 바라본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수가성 여인은 거듭났다고 4:4~26). 그녀는 물통을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요 4:29~30). 여인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임을 가르치셨다. “회화는 네 말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영의 눈을 떠서 추수가 필요한 밭을 보아야 한다. 복음이 절실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자.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조차도 복음과 멀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 비복음적인 축복론에 열광하고 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로 믿는다면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다. “지혜 있는 자는 금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복음의 증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마 13:43).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손해와 필박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것이다(시 126:5~6).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현세를 바라보며 한숨 지지 말고, 복음을 에타게 기다리는 영혼들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다음 호에 계속)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사도행전 22:16)

지난 주일(4월 11일)부터 2010년 제2차 학습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들은 다음 주일(4월 25일) 한양예배 시에 있을 학습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학습 교육생을 만나다



세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 아시는 분의 권유가 있기는 했으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9교구의 이연희 성도는 세례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조자이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나의 잘못과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란다”며 기도를 부탁하였다.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속이 세례를 받고 성탄식에 참여하고 싶다는 대박양의 신선준 영제는 이전에 세례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주님을 믿어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나 둘씩 모여 앉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서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세례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육 현장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필기를 하는 예비 세례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세례교인이 되어 성탄식에 참여할 이들 한명 한명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기도한다.

취재 | 이은현 · 한원아 기자

· 제1교구관 309호 학습 교육실에 가장 일찍 24교구와 라순진 집사님 내외 분이 두 손을 꼭 잡고 들어오셨다. 주일예배에는 참석하고 계셨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던 남편을 위해 라순진 집사님은 카드 작성용 꼼꼼하게 도와주시며 교육까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아직은 교회생활이 어색한지 인터뷰 내내 부교역자의 손길을 내보이신 남편 분을 대신해 라순진 집사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교육받고 세례를 준비하며 함께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셨다.

·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 이번 학습 교육에 참석했다는 또 다른 안분은 만 나 수 있었다. 22교구의 이용준 성도였다. “교회에 나온지 1년 정도 되었다”는 말과 함께 “아직 말씀을 명쾌하게는 모르지만 학습 교육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찾고 알아가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귀한 고백을 하셨다.

· 이번 학습 교육에는 이 밖에도 부모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젊은이도 있었다. 이처럼 이번 학습 교육실에서 ‘가축의 충복기도’라는 공동체적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계 자매들이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학습 교육생들을 모두 알지는 못하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학습과 세례를 준비하는 영계 자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언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학습 교육생들의 마지막 인사를 떠올려본다. “기회를 뒤에 다시 만나신다. 6개월 뒤에 꼭 함께 세례 받으실다.”

Tip.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가? 꼭 받아야 한다!

세례란 ‘죄를 씻는다’는 뜻인데,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직자에 의해 행해진다. 세례는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생의 약속을 받는다(마 28:19). 또한 성경에는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 있다(골 2:12). 또한 성경에는 세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골 2:12). 또한 성경에는 세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골 2:12). 또한 성경에는 세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골 2:12).



선교를 가는 이유

저는 선교를 처음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왜 선교를 안 가냐?”고 물으면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다녀온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와 학업 때문에 힘들었지만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역을 가는 길에 버스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웠고 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노래보다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해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에게 저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과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 중에 어떤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답하였고, 그 동네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선교를 간다면 꼭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역 기간이 짧아서 돌아와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한 명에게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최수민(중동부)

택하신 자를

첫 번째 선교와 같은 곳으로 간 두 번째 선교였는데 이번 선교는 그때와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첫날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둘째 날부터 사역을 나갔습니다. 저번 선교 때와 달리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조끼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못했고 전성으로 대하거나 무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막막했지만 조원들과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전하니, 선교지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는지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선교지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서 너무 뿌듯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밤에는 팀장님께서 말씀을 들려 주시고 회개하며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 학교에서 다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원동현(중동부)

나 같은 죄인을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선교를 제안 받았을 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갇은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선교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지!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거대하고 인구도 엄청난 국가로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국민 정서는 율법론과 무신론에 빠져 있었고 반기독교적 문화에 젖어 있어 선교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가 신이다. 국가가 금지하는 종교이다”라며 우리의 선교를 거부하는 자들을 볼 때 ‘이곳은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면 “뭇 알아들겠다”며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선교언어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아이들 대부분이 곁에 어른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선교언어 한 마디 한 마디에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니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광활한 선교지의 고산 지대 마을에서는 우리의 어눌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가 많음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다고 누워 있던 노인이 우리의 기도로 병상을 떨쳐 버리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70~80대 이상의 경사진 고지대를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 “예수 믿으세요!” 외치기도 하고, 부교가 놓인 큰 강을 넘어 바나나 산지의 벽촌까지 곳곳을 다니며 선교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쁨으로 체험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노은영(경로, 경로1팀)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5일(목)~4월 23일(금)	6교구 1팀	김정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7일(수)~4월 16일(금)	9교구 1팀	박춘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작작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과 경배를 물린 것도 잠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저주하고 죽였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와 가정, 아이들, 남편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길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험사리 예수님을 버리고가는 나의 모습을 본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천국 백성이 아닌, 세상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분으로만 들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자기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누구보다 더 냉정하게 저주하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나는 어쩌면 가장 나쁜 죄인으로, 악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 "주님, 믿을 없이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원경(청년2부)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해요

바람과 바람이 만나고 난 후의 시간이었다. 여기 저기 모퉁이마다, 거리마다 한결같은 바람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음을 느꼈다. 주님이 잠잠하게 하신 것일까 두 겹께 껴있고 나온 것을 조금은 후회하며 교회로 갔다. 멀리서 언덕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보았을 때 따뜻한 온기가 모여 있음이 느껴져 단숨에 걸음을 재촉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3년 전, 날 사모님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대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새벽기도회를 준비했다.

찬송과 대표기도가 끝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나서야 말씀이 시작되었다.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은 선포되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마지막 기도의 장소가 된 감람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기도의 첫 음을 시작한다. 지나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맡긴다고 한다. 또한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땀이 땀방울 되면서까지 말이다. 그 간절함이 나에게도 느껴졌고 기도의 온전한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는 장면도 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 후에는 얼마나 아픔이 밀려왔을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서까지 것이다.

내가 그 시대 사람이려면 나도 군사를 사이나 군졸들 사이, 또는 대제사장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멀리까지 아예 없는 사찰처럼 취급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내 마음이 시험에서 낙망한 사람만 명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역시 말씀에는 늘 필립과 인제 봐도 새롭게 표명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더욱 더 깨달았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또 모든 민족을 위해 죄를 담당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다.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현성(청년1부)

사순절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평상시에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잠이 많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처럼 주님은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창원(집사, 24교구)



성금요일의 은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성금요일 성찬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업이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달려갔다. 칸타타를 기대하면서 은혜받을 것도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 한 구간을 돌이켜보면 세상 가운데서 힘 없이 주저앉았던 한 주었지만, 그날만큼은 힘이 났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 동안 나는 시에 젖어 살아야 했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그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음의 기색이 있었지만 그날은 웬지 모르게 설렜다.

"더더욱 칸타타가 시작된다." 긴장감이 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 오펜스트라와 찬양 대원들, 반주자와 피아노, 오르간 연주자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다. 그 마음은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 중간 중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확신에 확신을 더했다. '바벨론'을 부를 땐 더욱 확신했다.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물려주신 것이다.

설교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처음에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십자가 고통 중에도 변치 않으신 우리에게 대한 주님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지만 언제나 내 삶은 세상에 서 받는 고통을 불평하는 기도로 가득 찼었다. 그런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 "제삼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8~19)를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혼자자 아픔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것보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죄를 용서하며 다시금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했다. 나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소망하게 된 은혜로운 성금요일 성찬예배였다.

김윤영(대목부)

장애(鄕愛)는 불평함이 아닌, 주님의 '장애'(長愛, 영원한 사랑)이다 ②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단다”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원중입니다. 20교구이고 청년1부입니다. 주일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무교여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나요?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중헌교회만 직업운전에 참석했다가 중헌교회를 알게 되었고, 길이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중헌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전에 다니다 교회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에 고통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중헌교회로 인도되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나에게 항부로 대하며 자신의 일을 미뤄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술이 부족해서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교회에선 강해를 구분하며 차별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과 찬양이 있다면?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찬양은 ‘예수 나를 위하여’(찬 144장)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원종아,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향한 위로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은 비전이 있나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제목들을 알려 주세요.

말씀을 들음에 있어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자가 되도록(가족들에게도...),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이 잘못 되어 우울증까지 생겼는데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원중 형제

선천성 장애우로 다른중추근이며, 손에도 장애가 있음에도 인터넷 내내 배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주 안에서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환경이 다르더라도, 성김의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었다! 우리는 만 영제로 자매인 것이다!

취재 | 이은정 기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어 소망이 없던 저에게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저는 마음의 열려와 근심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 적은 나이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헌교회에 나와 3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보아온 중헌교회의 모습은 거룩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전 찬양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위임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중헌교회에서 신앙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등록 이후, 새가족양육부에서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큰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정말 하루 하루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이 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정말 복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길 생각합니다. 저를 중헌교회로 인도하여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감사드립니다.

최용호(성도, 새가족양육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67	김경태	13 청년2부		387	정희영	22 청년1부	
368	이재진	16 청년1부	김복희(13)	388	조재욱	5 장년2부	권백용(22)
369	조성배	12 장년3부	김경애(20)	389	김미경	2 대학부	전숙영(19)
370	김금향	12 장년3부	김경애(20)	390	박성배	17 청년2부	박용순(17)
371	이준호	22 대학부		391	왕연준	3 청년2부	왕영철(16)
372	윤서연	9 청년2부	김장성(이)	392	박종문	19 장년2부	김순재(19)
373	이경재	24 소망부	남영숙(24)	393	정영남	2 장년2부	
374	윤익봉	12 장년3부	김순희(18)	394	김옥자	2 장년2부	
375	공태호	15 장년2부		395	주윤호	22 장년2부	하영철(19)
376	오유진	15 청년2부		396	이동현	23 대학부	허민선(2)
377	공지연	15 초등1부		397	김도유	3 대학부	왕선지(9)
378	정성호	15 장년1부	최선미(1)	398	송현정	4 청년2부	지영순(4)
379	백문근	1 청년1부	조은선(10)	399	유성준	10 소망부	김순남(10)
380	황지현	10 초등1부	최경순(10)	400	우연희	19 고등부	이승연(19)
381	이근형	1 청년1부	김영애(10)	401	고은비	19 고등부	이무라(19)
382	원재송	17 장년2부	서인순(14)	402	김상술	19 장년3부	유신덕(7)
383	이강예	17 장년2부	서인순(14)	403	김현서	20 청년1부	정현웅(2)
384	김시은	16 장년2부	차부희(8)	404	안순환	9 장년1부	정문호(10)
385	정철용	16 장년3부	김부여(8)	405	방숙희	18 장년2부	허정욱(8)
386	김신규	13 장년1부	조영우(8)	406	정우현	22 청년1부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